



거동 불편한 노인 나들이 "同行."

일본의 뉴비즈니스

“부인 모지잡배 만족”

「나이를 고, 다리에 힘이 없
어져도 여러 곳에 나다니고
싶다.

그런 욕망에 대응한 민간
회사의 「외출 지원서비스」가
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다
양해지고 있다. 요즘이 비싸
다는 느낌을 비롯, 과제도
많지만, 선택의 폭은 확실히
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.

東京都 港區에서 혼자 사
는 吉永씨(84)는 지난해 9
월 하순, 1년반만에 시즈오
카縣 小山町에 있는 좋은 부
인 모지를 참배할 수 있었
다. 몸이 약해서 혼자 멀리
외출하기 어려웠던 그는 어

여성보조자, 병원갈때 부족

웨건차량 이용, 여행-레저-결혼식장行도 “동승”

편 여성 보조자 36)의 부족
을 받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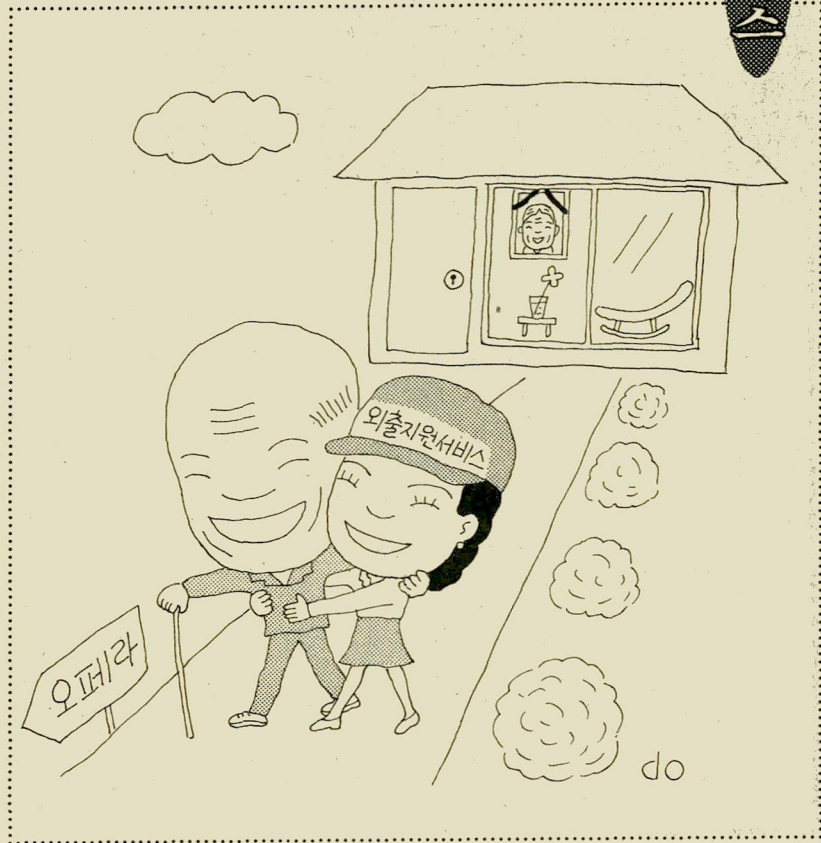
그가 이용한 것은 회원제
복지서비스회사 「후라이이
서비스」(東京都 中央區)의
시중서비스. 요즘은 1시간
에 2천~3천엔. 吉永씨는
9시간반 이용에 2만5천6
백50엔을 지불했지만, 「모지
잡배」할 수 있어서 좋았
다.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
이었다고 말했다.

이 회사는 지난해 6월,
여성 지원만으로 출발했다.
出口降子(사장, 43)은 연극 관
람이나 쇼핑을 가고 싶어도
혼자서는 불안하고 형제들중
「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
면 좋겠다」고 생각하고 사람

이 많다는 사실에서 잠재적
가능성을 내다보았다.

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누워
있어야 하는, 몸이 부자유스
런 노인들을 전용 차량으로
목적지까지 보내주는 민간
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. 宮
園자동차(東京都 中野區)는
휠체어나 스트레처(가동식
간이침대)마다 승객할 수 있
는 리프트기가 부착된 웨건
차를 14대 가지고 있다.

표면이용이 70~80%
조수석을 포함하여 5~6
명이 동승할 수 있다. 수요
가 늘었기 때문에 보유 차량
대수를 2년전보다 3배이상
늘렸다고 한다.



1시간 2천~3천엔... 전국 498개업체 성업

「병원으로 가는 것이 전
의 75.8%」 여행이나 놀
같은 가족 레저에 이용하
노인이 늘고 있는 것이 최
경향이라고 이 회사 복지
阿部清次장은 밝혔다. 운
은 각 지역 운수국별로 결
된다. 이용 요금은 이른
「하이」로 불리는 중형
세 자동차의 경우, 7:5
또는 30분까지
2천3백50엔.
조요원이 딸리
1회 5천엔이
산된다.
사업을 시작
재작년 불만 해
이용 건수가 한
에 20건쯤이었
것이 지금은 1
50건으로 늘었다
지난달 중순에
병원에 입원중
67세 남성이
결혼식에 참석
기 위해 결혼식
인 호텔까지 웨
차를 이용하기
했다.

이 차량을
받든지 보조자
사람이 동승한다
요금은 7:5
또는 30분 이내
6천9백엔. 中
文二 부장은 「이
중인 환자나 병
신체 상환을 고
해 섬세한 서비
가 필요하다는
강조한다.

일본 운수성
로부터 이차
지 관련 차량
운행면허를 받은 업체는
난해 11월 현재 일본 전국
4백98개 업체로, 차량 대
만 8백40대에 이른다. 최
몇 년 동안 업체 수가 게
증가하고 있지만, 일본 경
불황 때문에 채산성 여려
을 겪고 있는 회사도 적
않다고 한다.